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가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Girls*

정윤주(Yun Joo Chyung)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and (2) whether or not body comparis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91 girls from fifth through ninth grad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s given in classroom setting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are significant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Furthermore, body comparison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the idea that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of beauty and individuality for every person should be promoted, and this in turn could lower the risk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girls.

Key Words :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s), 외모(appearance), 내재화(internalization), 신체 비교(body comparison), 신체불만족(body dissatisfaction)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7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un Joo Chyung,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406-772, Korea
E-mail : ychyung@incheon.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 론

최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그에 따른 불건강한 방법의 체중감소 시도, 성형수술 증가 등 신체를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행동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서도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에 실시된 한국 아동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a)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동청소년 9,844명 중 57.6%(남 49.7%, 여 66.1%)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국 청소년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b)에서는 최근 1년간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45.4%(남 36.3%, 여 55.9%)에 달했고, 같은 기간 동안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4.5%(남 33.4%, 여 35.7%)였으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외모나 신체조건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8%(남 4.0%, 여 10.3%)였다. 이와 같이 한국 청소년의 상당수가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느끼며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신체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을 일컫는 것인데(Garner, 2002)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인지적 특성과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신체불만족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신체불만족과 그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신체불만족

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 되며(Cho, 2009; Jang & Song, 2004), 사회불안을 유발하기도 하고(Cash & Labarge, 1996),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며(Lee, 2012; Levine & Smolak, 2001; Paxton, Neumark-Sztainer, Hannan, & Eisenberg, 2006), 과도한 체중조절 행동이나 섭식장애의 원인이 되고 (Neumark-Sztainer, Paxton, Hannan, Haines, & Story, 2006; Son, 2008; Stice, 2002), 자살사고나 자살시도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Kim & Kim, 2009; Noh & Choi, 2009; Rodriguez-Cano, Beato-Fernandez, & Llarrio, 2006)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체불만족은 최근 한국 청소년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서적 문제로부터 섭식장애나 자살 등 심신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심각한 결과를 낳는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는 변수들과 이들이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런 연구의 결과들로부터 청소년기 신체불만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체불만족은 관련되는 심리정서적 문제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어느 연령에서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초등학교 상급생과 중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기 초기의 신체불만족은 발달적 특성 상 더욱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청소년기 초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인 신체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Smolak & Levine, 2001). 이때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이차성징 발달 등의 신체변화를 겪으면서 그 이전까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지각과 평가가 변화되며 신체상이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불만족이 커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

리적, 정서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체불만족은 이 시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청소년 초기에 발달적으로 겪게 되는 신체 변화가 신체불만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 초기 여성은 이차성징 발달 과정에서 신체에 지방이 축적되며 이에 따라 체질량 증가가 동반된다. 이러한 변화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이라 여기는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청소년기 초기의 신체불만족과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에 더 취약하다(Levine & Smolak, 2002). 게다가 청소년기의 신체불만족과 이에 수반되는 심리정서적 문제들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므로(Ohring, Graber, & Brooks-Gunn, 2002) 장기적으로 심신의 발달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의 신체불만족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신체불만족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이 겪는 문제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체불만족의 개념과 신체불만족 관련 변수들 간의 작용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불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Kostanski, Fisher, & Gullone, 2004; Phares, Steinberg, & Thompson, 2004; Sohn, 2010) 남녀에게 동일한 개념적 정의와 연구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여자 청소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신체불만족이라는 인지적, 감정적 경험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러

한 평가에는 사회문화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Grogan, 2006). 자신의 신체 모습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외모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인식하게 된 이상적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의사가 있을만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수용하는 심리적 상태이다(Thomson, van den Berg, Rodhrig, Guarda, & Heinberg, 2004).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이상적인 신체의 기준은 대부분의 여자 청소년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것을 선망하는 정도가 크다면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Tiggemann & Lynch,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불만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이상에 가까운 신체 기준을 의식하고 자신이 그러한 기준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믿는 심리 상태는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불만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Cafri, Yamimiya, Brannick, & Thompson, 2005; Son, 2008) 신체불만족이나 섭식장애가 심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조절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는 보고도 있다(Stice & Hoffman, 2004).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b)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사회문화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한국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서 특히 의미가 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재화는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주요 변수로 연구되어 왔고 상당히 일관된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다음 단계로서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비교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사이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신체비교는 자신의 신체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으로 정의되는데 신체비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외모가 소속집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가늠하게 되므로 (Heinberg & Thompson, 1992) 신체비교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신체비교는 스스로 의식할 겨를도 없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었는데(Botta, 1999) 이러한 행동은 주변에서 눈에 띄거나 자신과 자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Lin & Kulik, 2002; Strie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수시로 하게 되는 신체비교는 신체불만족이나 체중조절 욕구를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비교를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을 경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Leahey, Crowther, Mikelson, 2007; Son, 2008) 또래와 빈번하게 신체비교를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자신의 체중이 무겁다는 걱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Wertheim, Paxton, Schutz, & Muir, 1997).

이처럼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타인과 더 자주 비교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신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비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중매체에서 제시되는 외모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이상적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신체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Schutz, Paxton, & Wertheim, 2002; van den Berg, Thompson, Obremski-Brandon, Covert, 2002). 신체비교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행동이지만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심리 상태가 강할수록 신체적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 조건을 살피고 서로 비교하는 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청소년기는 발달특성 상 또래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Brown, 2005) 청소년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중요하게 수용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또래 집단은 그러한 정보의 출처로서 매우 중요해질 것이므로 또래와의 신체비교 또한 더욱 빈번하게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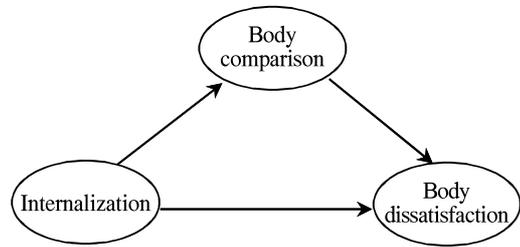
또한 신체비교의 동기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자기개선 동기는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비교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Sohn, 2010) 청소년들의 신체 관련 자기개선 동기가 자극되면 자기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향 신체비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에 대한 자기개선 동기를 자극하여 신체비

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신체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의사가 있다면 자신의 외모가 사회문화적 기준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자기개선을 할 동기가 강할 것이며(Harrison, 2001) 그에 따라 신체비교 행동이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관련 요인들에 공통적으로 관여되는 변수임을 제시한 연구(Bessenoff, 2006)나 이와 유사하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한 정도가 강할수록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이 모두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Engeln-Maddox, 2005; Tiggemann & McGill, 2004)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비교를 증가시키고 신체비교는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는(Fitzsimmons-Craft et al., 2012; Hargreaves & Tiggemann, 200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신체비교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나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방식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Barker & Galambos, 2003), 신체불만족의 의미에도 성차가 있을 수 있으며(Kostanski, Fisher, & Gullone, 2004)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신체불만족은 여자 청소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이므로(Knauss, Paxton, & Alsaker, 2008)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 관계는 신체비교에 의해 매개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여자 청소년 336명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측치가 있는 질문지 45부를 제외한 후 29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 별 인원 구성은 초등학교 5학년이 17.5%(51명), 6학년이 21.6%(63명), 중학교 1학년이 18.9%(55명), 2학년이 23.0%(67명), 3학년이 18.9%(55명)였다. 아버지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1.7%(5명), 2.4%(7명)이었고, 고졸이 39.2%(114명), 전문대졸이 4.8%(14명), 대졸 이상이 51.9%(151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1.7%(5명), 4.1%(12명)이었고, 고졸이 58.8%(171명), 전문대졸이 3.4%(10명), 대졸 이상이 31.9% (93명)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1.4%(4명), 어렵다 8.2%(24명), 보통이다 64.6%(188명), 넉넉하다 22.0% (64명), 매우 넉넉하다 3.8%(11명)로 지각하였다.

2. 측정도구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molak, Levine, & Thompson, 2001) 번안본(Lee & Oh, 2003)의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하위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신체와 외모의 기준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옷은 날씬한 모델이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 ‘날씬한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어 점수의 범위는 6점부터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신체와 외모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척도 문항들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 신체비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또래와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he Body Comparison

Scale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번안본(Cho, 2005)의 3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자신의 키, 전반적인 몸매, 몸무게를 친구들과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척도의 문항들은 ‘자신의 키를 친구들의 키와 얼마나 자주 비교합니까?’ ‘자신의 몸매를 친구들의 몸매와 얼마나 자주 비교합니까?’ ‘자신의 몸무게를 친구들의 몸무게와 얼마나 자주 비교합니까?’이다. 각 문항은 ‘전혀 비교하지 않는다’(1점)부터 ‘항상 비교한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키, 몸매, 몸무게를 친구들과 비교하는 빈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척도 문항들의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 신체불만족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Mendelson, Mendelson, & White, 2001)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과 생각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지각을 묻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 ‘내 몸무게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내 또래 아이들은 내 외모를 좋아한다.’ 등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형식이며 ‘예’로 응답한 것은 1점, ‘아니오’로 응답한 것은 0점으로 코딩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24점까지이며 문항들 중에

서 신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낸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신체비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ar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따라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독립변수로, 신체불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독립변수로, 신체비교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를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불만족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Variable	<i>M</i>	<i>SD</i>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6.27	5.81
Body comparison	13.27	5.15
Body dissatisfaction	7.78	2.98

III. 결과분석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 간의 상관관계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비교($r = .41, p < .001$), 신체불만족($r = .29, p < .001$)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비교도 신체불만족($r = .22, p < .001$)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신체비교를 빈번히 하며,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또래와의 신체비교가 빈번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 관계에 대한 신체비교의 매개효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

<Table 2> Correlations among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Body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1		
Body comparison	.41***	1	
Body dissatisfaction	.29***	.22***	1

*** $p < .001$.

불만족 간 관계에 대한 신체비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종속변수인 신체불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beta = .29,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매개변수인 신체비교를 유의미하게 예측($\beta = .41,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3단계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beta = .22, p < .001$)와 신체비교($\beta = .17,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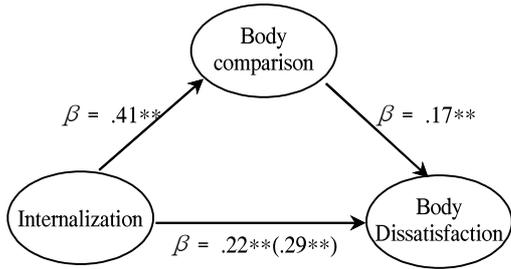
.001) 모두 신체불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3단계의 결과와 1단계의 결과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1단계와 3단계에서 모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신체불만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3단계에서의 영향력이 1단계에서보다 약화되었다($\beta = .29 \rightarrow .22$). 따라서 매개변수인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

<Table 3> Mediating effect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R ²	F
Step 1	Dependent variables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23	.29	7.51***	.08	56.47***
Step 2	Body comparison				
Internalization	.18	.41	11.07***	.17	122.63***
Step 3	Body dissatisfaction				
Internalization	.18	.22	5.33***	.11	36.65***
Body comparison	.30	.17	3.94***		

*** $p < .001$.



Note. The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without the mediator.
 ** $p < .01$.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body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체비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z = 3.72, p < .001$)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강할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신체비교가 매개변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하게 내재화 할수록 신체불만족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데 이런 현상은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는 것이 신체비교를 유발하고 신체비교를 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욱 불만족스럽게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여 Figure 2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부정적 신체상 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체불만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특히 신체불만족의 문제는 여자 청소년에서 더욱 심각하고, 신체불만족 관련 변수들의 의미나 이들이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 신체비교,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신체비교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에 모두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하게 내재화 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또래와 더 빈번히 비교하였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불만족스럽게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또래와 빈번히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켰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불만족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는 것이 신체불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 선행연구들(Cafri, Yamimiya, Brannick, & Thompson, 2005; Son, 2008; Forbes & Jung, 2008; Tiggemann & Lynch, 2001)과 일관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외모의 기준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태인데 이러한 이상적 기준은 여성에 관하여 특히 획일적인 경향이 있으며(Hargreaves & Tiggemann, 2004)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이 그러한 이상적 기준에 근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 때문에 신체불만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 비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도 선행연구와(Schutz, Paxton, & Wertheim,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외모 기준을 내재화 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모습에 민감해지며 그러한 기준에 가깝게 자신의 신체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강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신체 모습과 이상적인 신체 모습 간의 격차에 주목하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또래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여 신체비교를 더욱 빈번히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Taylor, Neter, & Wayment, 1995).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도 선행연구들(Myers & Crowther, 2009; Son, 2010; Tiggemann & McGill,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또래들과 빈번히 비교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욱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회비교이론의 원리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것을 특히 중요시 하는 발달적 특성 때문에 또래집단의 가치나 기준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Brown, 2005). 따라서 외모에 관해서도 또래집단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또래집단의 외모 기준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신체비교를 하는데 신체비교의 결과 자신에 대

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신체불만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기개선을 위해 신체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상향비교를 하게 되는데(Sohn, 2010) 상향비교는 우울이나 낮은 자존중감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Hargreaves & Tiggemann, 2004)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를 신체비교가 매개하는지 알아본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는 직접적으로 신체불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비교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는 것은 외모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중요하며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를 자신도 지니고 싶은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것이다(Lee & Oh, 2003). 그런데 일반적인 청소년이 이상적인 외모를 지닐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강하게 내재화 할수록 이에 따른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외모가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욱 예민하게 비판함으로써 신체불만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게 되면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Harrison, 2001, Rickins, 1991) 자신의 신체를 또래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신체비교는 대체로 자신보다 다소 상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또래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Schutz, Paxton, & Wertheim, 2002) 신체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비교를 유발하고 신체비교를 할수록 신체불만족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들이 신체비교를 할 때 보이는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신체를 타인과 비교할 때 자신과 관련성이 있으며 유사성이 많은 또래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이상형인 비현실적으로 마른 신체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크다는 연구결과(Engeln-Maddox, 2005)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비교에 있어서 과도한 상향비교를 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임을 시사하므로 여자 청소년들이 또래와 신체비교를 하는 경우에도 또래집단에서 이상적인 기준에 가장 가까운 또래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들은 신체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경향도 있기(Strahan, Wilson, Cressman, & Buote, 2006) 때문에 신체비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비교를 유발하고 신체비교를 할수록 신체불만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확증편향(Cash & Pruzinsky, 2002)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신체 모습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는 확증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에 따라 형성된 믿음을 유지

시키기 위해 추론이나 정보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 하면 자신의 신체 모습을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모습과 사회문화적 이상형 간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면서 체형이나 체중에 관한 정보에 민감해지며 자신보다 신체적 매력이크다고 인지되는 또래들과 자신을 더욱 빈번히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화되면서 신체불만족도 심화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가 신체불만족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비교를 매개효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비교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재화하는 것은 신체비교를 증가시키고 신체비교의 증가에 따라 신체불만족도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 청소년이 현실적으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지닐 수 있는 이상화 된 체형을 자신도 지니고자 선망할수록 신체 모습에 민감해지며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신체비교를 더욱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 신체불만족은 아동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향후에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불만족 관련 변수나 변수들 간의 관계에는 성차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신체상의 문제를 겪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에서 더 높아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남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뿐, 그것이 심리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신체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체형의 전반적인 측면에 관해 묻는 소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비교의 여러 측면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비교의 보다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논의를 심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재화와 신체비교가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주요 변수로 판단되어 이들이 신체불만족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 이 두 변수가 신체불만족의 변량을 설명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추후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외모는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더 잘 수용되고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외모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외모가 개인의 성공과 행복한 삶에 가장 중요하다

는 태도를 받아들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이에 수반되는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외모를 중시하며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arker, E. T., & Galambos, N. L. (2003). Body dissatisfaction of adolescent girls and boys : Risk and resource factor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 141-16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ssenoff, G. R. (2006). Can the media affect us? Social comparison, self-discrepancy, and the thin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239-251.
- Botta, R. A. (1999). Television images and adolescent girls'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9*(2), 22-41.
- Brown, B. (2005). Adolescent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In R. M. Lerner and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Hoboken, NJ : Wiley.

- Cafri, G., Yamamiya, Y., Brannick, M., & Thompson, J. K. (2005).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on body image : A meta-analysis. *The Author, 12*, 421- 433.
- Cash, T. F., & Labarge, S. (1996). Development of the Appearance Schemas Inventory : A new cognitive body-image assess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1), 37-50.
- Cash, T. F., & Pruzinsky, T. (Eds.). (2002). *Body image :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Cho, Y. J. (2009). The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esteem : Mediating variables of sex-role identity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 87-99.
- Cho, Y.-M. (2005). Children and adolescents' body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yungki-do, Korea.
- Engeln-Maddox, R. (2005). Cognitive responses to idealized media images of women : The relationship of social comparison and critical processing to body image disturban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24*, 1114-1138.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tzsimmons-Craft, E. E., Harney, M. B., Koehler, L. G., Danzi, L. E., Riddell, M. K., Bardone-Cone, A. M. (2012).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thin ideal internaliz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among college women : The roles of social comparison and body surveillance. *Body Image, 9*, 43-49.
- Forbes, G. B., & Jung, J. (2008). Measures based on sociocultural theory and feminist theory as predictors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U. S.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 70-103.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pp. 295-303). New York : Guilford Press.
- Grogan, S. (2006). Body image and health : Contemporary perspective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523-530.
- Hargreaves, D., & Tiggemann, M. (2002). The role of appearance schematicity i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body dissatisfac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691-700.
- Harrison, K. (2001). Ourselves, our bodies : Thin-ideal media, self-discrepancies,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in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289-323.
- Heinberg, L. J., & Thompson, J. K. (1992). Social comparison : Gender, target importance ratings, and relation to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 335-344.
- Jang, S.-C., & Song, M.-H. (2004).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1*(3), 115-133.
- Kim, D.-S., & Kim, H.-S. (2009). Body image dissatisfaction as a predictor of suicidal

- ideation among Korean boys and girls in different stages of adolescence :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 47-54.
- Knauss, C., Paxton, S. J., & Alsaker, F. D. (2008).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ternalization of the media body ideal and perceived pressure from media. *Sex Roles, 59*, 633-643.
- Kostanski, M., Fisher, A., & Gullone, E. (2004). Current conceptualization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 have we got it wro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1317-1325.
- Lee,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related stres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South Korean adolescent girl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0*, 903-918.
- Lee, S.-S., & Oh, K.-J. (2003). Validation study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13-926.
- Leahey, T. M., Crowther, J. H., & Mickelson, K. D. (2007). The frequency, nature, and effects of naturally occurring appearance-focused social comparisons. *Behavior Therapy, 38*, 132-143.
- Levine, M. P., & Smolak, L. (2002). Body image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pp. 74-82).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Lin, L. W., & Kulik, J. A. (2002). Social comparison and women's body satisfac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15-123.
- Mendelson, B. K., Mendelson, M. J., & White, D. R. (2001).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 90-106.
- Myers, T. A., & Crowther, J. H. (2009). Social comparison as a predictor of body dissatisfaction :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683-698.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8). Research on human right conditions of Korean adolescents III : International comparison.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a. 2010 Report on Korean adolescent health.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b. Research on human right condition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I : 2011 Statistics on human right condition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 Neumark-Sztainer, D., Paxton, S. J., Hannan, P. J., Haines, J., & Story, M. (2006). Does body satisfaction matter? Five-year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health behaviors in adolescent females and 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 244-251.
- Noh, H.-L., & Choi, K.-I. (2009). The effect of body image upon youths with suicide idea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nse of dep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0*(3), 141-165.
- Ohring, R., Graber, J. A., & Brooks-Gunn, J. (2002). Girls' recurrent and concurrent body dissatisfaction :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ver 8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404-415.

- Paxton, S. J., Neumark-Sztainer D., Hannan, P. J., Eisenberg, M. E. (2006). Body dissatisfaction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ve mood and low self-esteem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 539-549.
- Phares, V., Steinberg, A. R., & Thompson, J. K. (2004). Gender differences in peer and parental influences : Body image disturbance, self-worth,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21-429.
- Rickins, M. L. (1991). Social comparison and the idealized images of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71-83.
- Rodriguez-Cano, T., Beato-Fernandez, L., & Llarío, A. B. (2006). Body dissatisfaction as a predictor of self-reporte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 A Spanish community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684-688.
- Schutz, H. K., Paxton, S. J., & Wertheim, E. H. (2002).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1906-1937.
- Smolak, L., & Levine, M. P. (2001). Body image in children. In J. K. Thompson (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in youth : Assess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pp. 41-66).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molak, L., Levine, M. P., & Thompson, J. K. (2001). The us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with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 216-223.
- Sohn, S. H. (2010). Sex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and comparison motives in body image proces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2*, 481-500.
- Son, E. J. (2008). The influence of self-esteem, physical comparison,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on the eating disorder symptoms of college 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 885-901.
- Son, E. J.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riticism, body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 of perfectionism and binge eat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4), 1103-1122.
- Stice, E., & Hoffman, E. (2004). Eating disorder prevention programs. In J. K. Thompson (Ed.), *Handbook of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New York : Wiley.
- Stice, E., Shaw, H., & Nemeroff, C. (1998). Dual pathway model of bulimia nervosa : Longitudinal support for dietary restraint and affect-regulation mechanisms.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17*(2), 129-149.
- Stice, E. (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825-848.
- Strahan, E. J., Wilson, A. E., Cressman, K. E., & Buote, V. M. (2006). Comparing to perfection : How cultural norms for appearance affect social comparisons and self image. *Body Image, 3*, 211-227.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 J. (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 246-263.
- Taylor, S. E., Neter, E., & Wayment, H. A. (1995). Self-evaluation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278-1287.
- Thompson, J. K., Coovert, M. D., & Stormer, S. M. (1999). Body image, social comparison, and eating disturbance : A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6*, 43-51.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s*.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van den Berg, P., Roehrig, M., Guarda, A. S., & Heinberg, L. G. (2004).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Scale-3 (SATAQ-3) :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 293-304.
- Tiggemann, M., & Lynch, J. E. (2001). Body image across the life span in adult women :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43-253.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23*, 23-44.
- Van den Berg, P., Thompson, J. K., Obremski-Brandon, K., & Coovert, M. (2002).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 A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vestigation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earance comparis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1007-1020.
- Wertheim, E. H., Paxton, S. J., Schutz, H. K., & Muir, S. L. (1997). Why do adolescent girls "watch their weight"? An interview study examining sociocultural pressures to be thi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2*, 345-355.

2012년 11월 12일 투고, 2013년 3월 21일 수정
2013년 4월 16일 채택